

상대평가 시대의 질투와 시기 그리고 ‘보통의 삶’의 가능성

— 한국 드라마 〈치즈인더트랩〉 연구

장정윤*

1. 들어가는 말
2. 상철의 허세와 시기심
3. 유정의 위선과 질투
4. 홍설의 ‘노오력’과 감정의 회피
5. 나가는 말

국문요약

이 논문은 상대평가에 의해 뽑히거나 아니면 뽑히지 않는 극한의 경쟁 체제 속에서 청년들이 느끼는 질투와 시기 감정의 특징을 살펴보고, 질투와 시기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면 이 감정을 통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웹툰 〈치즈인더트랩〉을 각색하여 2016년에 TV 드라마로 방영된 〈치즈인더트랩〉을 분석한다. 이 드라마는 캠퍼스 로맨스를 표방하지만, 그 이면에는 상대 평가로 끊임없이 경쟁하고 질투와 시기심을 느끼는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다. 김상철, 유정, 홍설이 느끼는 시기와 질투 감정은 두 가지 감정 양상을 보여준다. 우선, 김상철이 느끼는 시기심은 자신보다 우월한 것을 뛰어넘어보도록 자극하는 감정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낙담

* 숙명여자대학교 인문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하게 만드는 감정이다. 김상철이 느끼는 시기심은 상대평가 체제 속에서 ‘보통의 삶’을 꿈꾸기조차 힘들어진 냉혹한 현실을 드러낸다. 한편, 경제적 배경이 너무 다른 유정과 홍설은 서로를 통해 시기와 질투 감정을 느끼고, 또한 주위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게 되면서 점차 자기 자신과 타인이 처한 상황을 알아가게 된다. 이 논문은 시기와 질투 감정이 경쟁에만 매달리게 만드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대표 감정으로 규정하고 이 감정이 개인들에게 허세, 낙담, 분노, 무감각으로 나타나는 상황을 분석하려고 한다.

(주제어: 치즈인더트랩, 상대평가, 질투, 시기, 경쟁, 낙담, 관계, 보통의 삶)

1. 들어가는 말

2017년 2월 4일자 세계일보 신문은 한국의 21세기를 살아가는 20·30대 청년들의 상황을 ‘이생망’이란 용어로 진단하는 기사를 다뤘다.¹⁾ ‘이생망’이란 “이번 생(生)은 망했다”²⁾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 청년들이 느끼는 비관적인 감정을 잘 드러내고 있다. ‘2007년 “88만원세대”로 시작해 “N포세대,” “민달팽이세대”로 불려온 한국의 청년층은 스스로를 ‘흙수저’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둘러싼 삶과 권리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때 그들이 느끼는 좌절감은 대체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에서 비롯된다.³⁾

1) 『“이생망” 청년들은 중얼거리고 있었다』, 『세계일보』, 2017.2.5.

2) ‘이생망’은 황지우가 1998년에 펴낸 시집 중 ‘거울에 비친 과중시계’에서 처음 나온다. 시는 이렇게 시작된다. ‘나, 이번 생은 베렸어/ 다음 세상에선 이렇게 살지 않겠어/ 이 다음 세상에선 우리 만나지 말자.’

3) ‘이생망’을 취재한 세계일보는 “2016년 청년층 실업률이 9.8%로 실업자 수 43만5000

현재 청년들은 취직걱정으로 인해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을 감수하고 있지만, 한편으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현실 역시 목격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현실과 동떨어진 또 다른 세상 사람들을 '금수저'라고 지칭하고, 불평등하게 구분된 한국 사회를 '헬조선'이라고 부른다.⁴⁾ 헬조선과 함께 쓰이는 '노오력', '탈조선' 등의 신조어들은 흙수저/금수저라는 이분법적인 서열 구조의 불평등한 사회 체제를 비판하고, 청년들이 한국의 비상식적인 불평등과 차별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는 마음을 대변하는 용어들이다. 청년들이 이런 경쟁 구조 밖으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건 그들이 능력이나 열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이런 '노오력'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회가 청년들의 꿈과 열정을 착취하고 있으며, 이미 나뉜 흙수저/금수저의 이분법적 서열 구조가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청년들이 그들의 꿈과 희망을 포기하는 또 다른 이유는 정규교육 과정 속에서 이미 '상대평가' 시스템을 통해 비교를 당하고 사회적 배제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백과사전에 의하면, '상대평가'는 “한 집단의 점수를 성적의 높은 순으로 배열하기 때문에 집단 내에서 개인의 변별력을 구별하기는 용이하지만, 구체적인 학습 성취 정도가 불분명하고, 타 집단에서 내린 평가와 모순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의 단점”이 있다. 상대평가는 자신이 아무리 잘해도 순위 안에 들지 못하면 저절로 낙오되지만, 때론 집단마다 구

여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최근 5년간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생망” 청년들은 증얼거리고 있었다』, 『세계일보』, 2017.2.5.

4) 2017년 2월 5일자 한국일보 역시 국내 소득 분포를 분석한 자료를 실고 “2015년까지의 최상위 소득 비중”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국내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즉 소득집중도가 전년도(47.9%)보다 0.6%포인트 높아진 48.5%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소득집중도 역대 최대.. 상위 10%가 48.5% 차지』, 『한국일보』, 2017.2.5.

성원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가 변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은 청년들은 순위 안에 들어야 안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상대평가를 받는 청년들은 자신의 경쟁 상대가 늘어나면 자신에게 올 기회는 그 만큼 없어지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역시 희박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해 한다. 그리고 이런 불안감을 느낀 사람들은 나 보다 “더 많은 것을 손에 넣은” 사람을 시기·질투하게 된다.⁵⁾

일반적으로 질투심은 “삼각관계에서 발생하는 세 사람의 감정”으로 자신과 관계있는 ‘특정인’을 향한 감정이라면, 시기심은 두 사람 사이 혹은 “자신과 무관한 사람이나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도 발생하는 감정”이다.⁶⁾ 연적 사이, 친구 사이 혹은 형제 사이 등에서 발생하는 질투는 “사랑받는 자로서의 자신감 없는 마음”에서 발생하는 감정이다.⁷⁾ 반면, 시기심은 “상대방이 가진 것을 내가 결핍했다고 느끼는 감정”⁸⁾으로 타인의 장점을 부러워하는 칭찬, 험담, 집단 따돌림, 소핑중독, 소매치기나 강도, 살해를 유발시키기도 한다. 그리고 질투를 느낀 사람이 자신의 경쟁자에게 저지르는 부정적인 행위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지만, 시기심의 파괴적인 행위는 때론 시기심을 느끼는 자신과 시기심을 유발시키는 대상 모두에게 불행을 초래하기도 한다.⁹⁾ 이런 이유 때문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질투와 시기는 탐욕, 열등감, 분노, 거짓말, 사기 등과 같이 부정적인 감정으로 여겼다.¹⁰⁾

5) 나카노 노부코·사와다 마사토, 『감정본색』, 노경아 옮김, 플루토, 2015, 89쪽.

6) 롤프 하우블, 『시기심: 나는 시기하지 않는다』, 이미옥 옮김, 에코리브르, 2002, 37쪽.

7) 김형경, 『사람풍경』, 사람풍경, 2016, 133쪽.

8) 김형경, 『사람풍경』, 사람풍경, 2016, 133쪽.

9) 케이트 배로스, 『시기심』, 김숙진 옮김, 이제이북스, 2001, 16쪽.

10) 동양에서 질투(嫉妬)는 질병을 의미하는 질(疾)에 계집 녀(女)를 사용한 여자의 전용물로 여기고 저급한 감정으로 취급했다. 아마우치 마사유키, 『질투의 세계사』, 이선

반면에 데이비드 버스(David Buss)는 질투를 미성숙한 감정이 아니라 삶에 적응하는 것을 돕는 감정이라고 정의했다.¹¹⁾ 공포심이 인간의 생존을 도왔다면, 질투는 “관계에 대한 실제적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고안된 것”¹²⁾이다. “수백만 년에 걸쳐 성공한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감정”¹³⁾인 질투는 인간들 사이에서 사라지지 않으며, 인간이 관계를 맺으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감정이다. 그래서 인간은 질투와 시기 감정을 잘 활용해서 사회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는 것이다. 질투가 부정적인 감정만이 아니라, 인간들 사이에서 관계를 맺고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적응 능력이라는 사실은 ‘이생명’을 말하고 있는 상대평가 사회 속에서 다시 생각해봐야 여지를 준다. 그 이유는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청년들은 가장 노골적인 질투와 시기를 느끼지만, 그 감정을 인정한다면 자신이 처한 현실을 성찰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극한의 경쟁 체제 속에서 상대평가에 의해 뽑히거나 아니면 뽑히지 않는 상황에 의해 삶 전체가 좌우되는 청년들이 상대방에게 느끼게 되는 질투와 시기 감정을 논의하려고 한다. 그리고 현재 청년들이 질투와 시기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면 이 감정을 통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이것을 통해 이룰 수 있는 ‘보통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이를 위해 상대 평

이 옮김, 이너북, 2009, 14쪽. 한편, 서양문화에서도 질투는 7대 죄악 중에 하나였다.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기독교의 7대 죄악은 게으름(나태), 교만, 탐욕, 탐식, 분노, 시기, 정욕(색욕)이다.

11) 데이비드 버스, 『오셀로를 닮은 남자 헤라를 닮은 여자』, 이상원 옮김, 청림출판, 2003, 31쪽.

12) 데이비드 버스, 『오셀로를 닮은 남자 헤라를 닮은 여자』, 이상원 옮김, 청림출판, 2003, 80쪽.

13) 데이비드 버스, 『오셀로를 닮은 남자 헤라를 닮은 여자』, 이상원 옮김, 청림출판, 2003, 32쪽.

가로 끊임없이 경쟁하고 질투와 시기심을 느끼는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한 드라마 〈치즈인더트랩〉을 연구하려고 한다.

드라마 〈치즈인더트랩〉은 2010년 7월 7일부터 7년 동안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연재했던 웹툰 만화가 원작이다.¹⁴⁾ 웹툰, 〈치즈인더트랩〉은 흡수저를 대표하는 홍설이 금수저 중의 금수저인 유정 선배와 만나 서로 이해하고 사랑을 하게 되는 이야기로, 어쩌면 너무나 진부한 신데렐라 이야기와 캠퍼스 로맨스가 섞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이 7년 동안 꾸준히 독자에게 인기가 있는 이유는 등장하는 남·녀 주인공의 로맨스를 흥미롭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앞서 지적한 ‘이생망’을 말하고 있는 청년들의 삶을 현실감 있게 보여주기 때문이다.¹⁵⁾ 주인공인 홍설은 상대평가를 당하는 흡수저 중에 흡수저로서 오로지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 애쓰지만 미래가 불확실한 대학생이다. 드라마 〈치즈인더트랩〉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물리적, 정신적 능력 그 이상으로 최선을 다해야 하는 ‘노오력’을 당연하게 여기는 홍설이 주위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미성숙한 그녀가 유정이란 인물을 만나면서 실제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적응해 가는지 그 과정을 보여 준다.

이 연구에서는 홍설이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 중에 김상철 선배와 유정 선배가 느끼는 질투와 시기 감정을 중심으로 보려고 한다. 김상철은

14) 2017년에 총 184화로 완결된 이 웹툰은 2016년 드라마로 만들어졌다. 이후 2017년에는 영화로도 제작될 예정이다. 1990년대까지 한국 만화는 대하서사물이나 극적인 드라마 요소가 강했지만, 웹툰이 활성화되면서 개인적인 생활 체험과 “일상사에 대한 몰입”을 다루고 있다. 류철균·이지영, 『자기 재현적 웹툰의 주제 의식 연구』, 『대중서사연구』 31, 2013, 118-119쪽. 웹툰 〈치즈인더트랩〉 역시 현대 젊은 대학생이 일상에서 겪는 사건과 감정을 세밀하게 재현하고 있다.

15) 이 연구의 대상이 웹툰이 아니라 2016년에 제작된 드라마인 이유는 2017년 3월 현재 까지도 웹툰이 연재되고 있기 때문이다. 드라마는 시리즈 1부터 3까지의 내용 중 인물들의 특징을 보여주는 중요한 에피소드가 포함되어 있고, 드라마 작가와 연출가가 바라보는 대학생들의 특징이 덧붙여져서 좀 더 다양한 관점을 살펴볼 수 있다.

홍설과 비슷한 배경 속에서 어렵게 대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감정과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홍설과 다르다. 그러므로 김상철이 느끼는 시기심의 특징을 논의하고, 그의 시기심이 현재 '이생명'을 말하는 청년 세대와 연결되는 점을 살펴볼 것이다. 한편, 금수저 중에 금수저인 유정 선배와 흙수저인 홍설 사이에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을 중요하게 느끼지 않고 혼자만의 영역 안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유정은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불신 때문에 사람을 멀리 한다면, 홍설은 자신의 삶 자체가 너무 고달프고 바빠서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는 점이 둘의 차이점이다. 유정과 홍설이 처한 감정의 부재는 각각의 개인이 해결해야 할 지엽적이고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이생명'을 말해야 하는 젊은이들이 처한 상대평가 체제의 문제점을 부각시킨다. 그러므로 유정과 홍설이 처한 감정의 부재의 특징을 분석하고 질투와 시기 감정이 이 둘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며, 또한 각자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들이 도달한 결론에서 꿈꿀 수 있는 '보통의 삶'의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2. 상철의 허세와 시기심

드라마 <치즈인더트랩>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 홍설의 학과 선배인 김상철은 상대평가로 인해 질투심과 시기심을 느끼지만, 이 감정을 숨기기 위해 허세를 부리는 인물이다. 로프 하우블(Rolf Haubl)에 의하면, 김상철이 보여주는 시기심은 자신보다 우월한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그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게 만들기 보다

는 “낙담”하게 만드는 감정이다.¹⁶⁾ 시기심을 극복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자신이 “감탄하는 사람을 본보기로 삼아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라면, 정반대가 바로 낙담이다.¹⁷⁾ 김상철이 느끼는 시기심이 낙담으로 연결되는 이유는 지방 출신인 그가 서울에 올라와 느끼는 “열등감”과 현재 상황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생각이 미묘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¹⁸⁾ 김상철은 자신이 느낀 시기심을 숨기기 위해 주변 사람들 앞에서 항상 큰 소리로 상대방을 헐담하면서 여론을 조성한다. 사람들은 그가 다른 사람을 시기해서 낙담하고 있는 상황을 전혀 눈치 챌 수 없었고, 오히려 특정인의 헐담을 주도하면서 다른 사람과 분위기를 조장하는 사람으로 생각한다.

김상철이 주로 헐담하는 사람은 홍설처럼 자기 일만 열심히 하고 다

16) 볼프 하우블은 시기심을 무력하게 하는 시기심, 고무적인 시기심, 논쟁적인 시기심으로 구분했다(볼프 하우블, 『시기심: 나는 시기하지 않는다』, 이미옥 옮김, 에코리브르, 2002, 31쪽). 고무적인 시기심은 긍정적인 시기심으로 경쟁자의 장점을 존경하고 그것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라며, 논쟁적인 시기심은 그 감정에 압도되어 분노하고 자신의 ‘뒤틀린 본성’을 드러낸다. 드라마 〈치즈인더트랩〉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홍설과 동기생인 남주현이다. 남주현이 ‘뒤틀린 여자가 된 이유는 유정이 자신이 아니라 홍설을 선택했고, 자신이 선택 당하지 못한, 즉 상대평가에서 뒤쳐진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남주현은 과대표가 될 만큼 사회성도 있고, 외모도 아름답지만, 그녀에게는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하면 상대가 나를 좋아해줄까”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장점을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고, “한없이 무력한 존재”가 된다. 미즈시마 히로코, 『여자의 인간관계』, 박선영 옮김, 눈코입, 2014, 29쪽. 결국 남주현은 그녀가 소유한 많은 장점과 능력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고, 가부장제 사회에서 최고의 신랑감인 유정의 선택이 바로 그녀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불행해진다. 남주현이 홍설에게 보여주는 적의와 분노는 자신이 소유하지 못한 행복을 홍설이 가졌다고 생각하고 느끼는 시기심이다.

17) 볼프 하우블, 『시기심: 나는 시기하지 않는다』, 이미옥 옮김, 에코리브르, 2002, 31쪽.

18) 많은 학자들은 시기심으로 인해 느끼는 열등감과 패배감 등이 만성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경험되면 우울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김미정·진민진·현명호, 『대학생의 시기심과 우울의 관계: 낙관성에 의해 조절된 후회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1집, 2016, 93쪽.

른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 홍설과 같은 조원이었던 그는 나쁜 조별 점수를 받는 것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오히려 홍설이 의기소침해 하며 다니는 것에 대해 “여자들이 군대 생활을 못해봤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과 정신을 모른다”(3회)고 험담한다. 김상철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홍설의 단점을 말함으로써 자신이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공동체의 협동심이 깨졌다는 사실을 숨기고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더욱이 그는 상대평가로 받은 낮은 점수에 연연해하지 않는 대범한 성격의 소유자로 스스로를 포장하고, 자신의 대범함과 홍설의 웅졸함을 비교함으로써 스스로를 홍설보다 우위에 놓으려고 한다. 그러나 사이토 이사무(齊藤勇)는 “험담하는 마음 뒤에는 콤플렉스와 자존심이 있다”고 했다. 사람들은 “험담을 통해 대상의 평가를 험담으로 끌어내림으로써, 상대적으로 자기평가를 높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험담”¹⁹⁾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김상철은 험담을 통해 자신의 콤플렉스뿐만 아니라 자신의 불안한 상태를 감추려고 허세를 부리는 것이다.

김상철이 사람들 앞에서 홍설의 험담하면서 스스로의 장점을 내세우는데, 사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말에 별로 호응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사람들은 이미 이 사건의 모든 잘못은 그의 게으름과 무책임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의 험담을 지적하지도 않는데, 그 이유는 김상철로 인해 학과 수석인 홍설의 성적이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성적이 오를 수 있는 희망 때문이다. 리처드 H. 스미스(Richard H. Smith)는 “경쟁 상황에서 질투를 가장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질투 대상에게 불행이 닥치면 우리에게 직접적이고 명백한 이익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²⁰⁾고 보았다. 한마디로 거의 모든 학생들이 홍설

19) 사이토 이사무, 『사람들은 왜 험담을 할까?』, 최선임 옮김, 스카이, 2014, 32쪽.

20) 리처드 H. 스미스, 『쌈통의 심리학』, 이영아 옮김, 현암사, 2015, 193쪽.

의 상황을 썸통이라는 생각하는 것이다. 다른 학생들은 김상철의 험담에 침묵으로 동조함으로써 그들 자신이 홍설에게 느낀 시기심을 김상철의 말에 투영시켜 드러내고 있다.

김상철과 홍설이 엮힌 또 다른 사건은 졸업 시험을 앞두고 유정의 시험 족보를 공유하는 문제이다. 그는 홍설이 유정의 시험 족보를 갖고 있는 것을 보고, 홍설에게 함께 보자고 요구하고, 경영학과 졸업시험을 앞둔 학생들 역시 모두 그와 같은 마음을 홍설에게 내비친다. 김상철과 함께 경영과 선배들이 홍설을 비난하는 이유는 홍설 역시 유정의 족보를 아무 노력 없이 얻었다는 점이다. 자신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홍설에게 족보를 보여 달라고 사정해야하는 상황 때문에 김상철과 다른 학생들은 홍설에게 시기심을 느끼고 화를 낸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화가 난다고 남의 것을 훔치거나 해를 가하지는 않는다. 김상철은 홍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유정의 족보를 훔쳤고, 졸업 시험을 통과한다. 경영학과 학생들은 모두 그가 졸업시험을 통과한 사실에 대해 놀라지만 아무도 그가 족보를 훔쳤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결국 김상철이 유정의 족보를 훔쳤다는 사실을 알게 된 홍설은 그에게 부끄럽지 않냐고 따지고 묻는다. 부끄러움이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숨겨진 본성이 튀어나와 그 어떤 것으로도 감출 수 없는, 즉 자신이 어떤 말이든 행동으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을 때 느끼는 감정이다. 그러므로 주체가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홍설이 김상철에게 부끄러움을 언급하는 이유는 그가 졸업 시험 통과라는 목적을 위해 도둑질을 하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비판하기 위해서이다. 즉, 홍설은 김상철이 한 행동이 자신의 절박한 상황을 앞세워 무엇이든 해도 된다는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자기 정당화

인지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시험에 합격하고 대기업 면접도 보는 등 많은 것이 원하는 대로 이뤄졌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자신이 이제까지 했던 거짓말로 인해 모든 것을 잃게 된다.²¹⁾ 상심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진실을 홍설에게 털어놓는다.

상철: 내가 너한테 미안해서... 그래 미안해서. 나는 뭐 쪽팔린지 모르는 줄 아냐? 나도 우리 시골에서는 영재 소리 천재소리 들으면서 자란 놈이거든. 연이대 합격했을 때 우리 시골에서 잔치했다. 완전 촌스럽지. 하...근데 막상 서울 올라오니깐 나 보다 똑똑한 놈, 힘센 놈, 돈 많은 놈, 놈놈들의 세상인거야. 그러니까 어떡해...살아야 되는데 나도. 그래 얼굴에 철판을 깔고 막 덤뻐. 그런데 안돼. 하루에 세 탕씩 알바를 뛰어서는 안돼. 안된다고. 이길 수가 없다구. 난 진짜 태랑 가고 싶었는데...나 태랑 같 실력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나 진짜 태랑 가고 싶었는데. (14회)

홍설은 이 고백을 듣고, 자신의 삶과 그의 삶이 얼마나 닮아있는지를 깨닫고 그가 느끼는 불안함과 절박함을 이해한다. 그녀는 김상철이 이제까지 보여준 무모함이 열심히 살고자 했지만 상대평가로 인해 상위권 안으로 도저히 진입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낙담한 자신의 모습을 숨기려는 위장이었음을 깨닫는다.

사회의 상대적 비교에 의하면 김상철은 시골에서는 “성공한 사람”이지만, 서울에서는 “실패한 사람”이다. 그러나 이런 구분은 그의 내재된 능력과 가치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상대적 비교에 의한 것인데, 아이러니하게도 현대 사회에서 이런 비교는 한번 결정되면 수정되기가 힘들다는 점이다. 결국 이미 잘난 “놈놈놈”을 대상으로

21) 유정은 상철이 홍설이 갖고 있던 유정의 족보를 훔친 것도 모자라 홍설의 뺨을 때린 것을 알고 상철이 갈 수 있었던 회사까지 못 가도록 상철에게 철저하게 복수를 한다.

느낄 수밖에 없는 상대적 박탈감을 의식하지 않으려고 김상철은 막무가내로 행동한 것이다. 겉으로 과장되면 과장 될수록 그의 이면은 불안하고, 서글프고,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김상철은 누구보다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려고 했지만, 그는 아무리 해도 사회적으로 무책임한 사람으로 낙인찍히는 현실로부터 도망칠 수가 없었다. 상철의 대학생활은 바로 상대평가로 인해 더 높은 단계로 올라 설 수 없는 청년의 단면, 즉 “더 아래로 추락하지 않으려는 소극적 자세, 피로와 체면의 은폐된 감정, 그리고 소박한 ‘보통의’ 삶에 대한 소망”²²⁾만을 안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상철 선배를 통해 드라마 <치즈인더트랩>은 ‘이생망’이란 절망 앞에서 거짓말이나 도둑질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미 없는 사람은 정당한 경쟁방법으로는 직장을 얻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미고, 은퇴해서 노년을 즐기는 ‘보통의 삶’을 꿈조차 꾸기 힘들어진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3. 유정의 위선과 질투

드라마 <치즈인더트랩>의 남자 주인공인 유정은 상철과 다르게 돈 걱정 없이 공부만 할 수 있으며, 졸업하면 유학이든 취업이든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상위 1%에 드는 사람이다. 즉 유정은 시기와 질투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상대평가 사회에서 사실은 그 누구와도 경쟁할 필요가 없는 절대평가를 받는 사람이다. 그리고 상철이 꿈꾸는 보통의 삶을 가장 잘 누릴 수 있는 인물이다. 그러나 이론과 다르게, 이 드라마

22) 김홍중, 『사회학적 파상력』, 문학동네, 2016, 277쪽.

에서는 유정 역시 그런 삶을 꿈 꿀 수 없는 인물로 등장한다. 이 장에서는 상철과 정반대이지만, 상대평가가 존재하는 사회 속에서 그 누구도 상대평가의 문제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을 유정을 통해 살펴 보도록 하겠다.

드라마 <치즈인더트랩>에 등장하는 유정은 일반적인 금수저라는 사회적 위치에서 오는 경제적 여유는 물론이고 인성 역시 훌륭한 사람으로 등장한다. 더욱이 주위 사람들은 유정을 시기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호구처럼 이용하기 쉬운 사람으로 취급한다.²³⁾ 그러나 이 드라마의 반전은 유정이 알고 보면 그 누구보다도 계산적이고 무서운 사람으로 자신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 자신이 당한 정신적·물질적 손상을 되갚아주는 사람이라는 점이다. 그의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많지만, 유정이 신뢰하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다가오는 사람을 모두 경계한다. 그 이유는 주위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 이기적인 의도와 목적을 갖고 자신에게 접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앞서 김상철은 자신보다 '잘난 놈놈'들에 대한 시기심을 감추기 위해 허세를 부리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못했다면, 유정은 '못난 놈놈'들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론 그들을 비웃고 경멸하는 위선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유정이 사람들을 불신하게 된 원인은 태랑 그룹의 회장인 그의 아버지가 사회적 책임과 다른 사람들의 평판에 집착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유정에게 사람들에게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줬다. 더욱이 자신의 독선적인 성격과 그로인해 겪은 고립과 외로움을 아들에게 물려주기 싫었던 유 회장은 아들이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아들이 원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잘

23) 고등학교 때는 일진들에게 항상 물건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않았고, 대학교 때는 선배 후배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밥을 사주고 일도 혼자 다 처리한다.

보이게 행동하도록 엄하게 다스렸다. 어렸을 때부터 유정은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놀기 싫어도 다른 아이와 노는 척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가식적인 관계를 맺어야 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란 유정은 보통의 삶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 청년이 된다.

청년이 된 유정에게 아버지가 바라는 것은 태량의 후계자라는 외연적인 직책이 요구하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며, 또한 그 직책으로 인해 받게 될 시기심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시기 받는 경험은 “자신이 완전히 말살되고 자신의 정체성, 동기, 감정에 관한 모든 것의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현실을 경험”²⁴⁾하는 것이다. 유 회장은 자신이 경험한 타인의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들은 이런 시기심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어서 어렸을 때부터 아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도록 훈육한 것이다. 그러나 유 회장의 이런 염려는 오히려 유정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기를 받기도 전에 시기 하는 사람을 방어하는 방법을 배우게 했고, 자신의 고유한 특성을 알기도 전에 ‘시기 받은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내재화하게 만들었다.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알기도 전에, 유정 역시 다른 사람들의 성격, 감정, 의도를 일률적으로 생각하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지나친 걱정과 사랑은 오히려 유정을 사람들로 부터 고립시켰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위선적인 태도를 취하게 만들었다.

유정의 감정적 부재와 그로 인한 가식과 위선은 사람들 앞에서는 웃지만, 피해를 준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이 받은 불쾌감, 모욕, 물질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되갚아주는 형태로 드러났다. 유정은 상대방이 지금 누구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으며, 왜 받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

24) 앤·베리 올라노프, 『신데렐라와 그자매들』, 이재훈 역,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9, 19쪽.

게 만들었다. 그러나 자신은 그 일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계획하고 자신의 보복을 언제나 성공시켰다. 이런 유정의 성격을 잘 아는 사촌 형 공주형²⁵⁾과 고등학교 친구 백인호는 유정을 “남의 감정 하나도 이해 못하고, 무시하고, 수틀리면 다 짓밟아버리고” 당한대로 갚는 사람이라고 평가한다. 홍설과의 만남도 사실은 유정이 자신의 이런 가식을 꺾어서 본 홍설을 괴롭히면서 시작됐다.

홍설이 휴학을 결심할 정도로 힘들게 했던 유정은 어느 순간부터 홍설에게 잘해주고 사귀자고 한다. 유정은 홍설이 자신의 본성을 알아챈 것에 놀라 홍설을 괴롭혔지만, 사실 홍설 역시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이 힘들고 외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특히 지쳐 자고 있는 자신을 밤새 간호하고 소파에 잠들어 있는 홍설이 잠결에 자신의 손을 잡는 사건 이후, 홍설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 그 뒤 드라마 <치즈인더트랩>은 유정이 몰래 홍설의 손을 잡는 장면을 반복해서 보여주면서 손의 의미를 다양하게 보여준다. 처음에 잡은 홍설의 손은 무방비 상태에서 타인과 아무 사심 없이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한다면, 두 번째 잡은 손은 홍설을 보호하고 싶다는 유정의 감정과 홍설을 놓치고 싶지 않은 그의 절박한 심정을 보여준다. 홍설의 손을 잡는 행위는 유정이 처음으로 타인을 경계하지 않고 자신의 영역으로 잡아 끌어들이는 것을 의미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맺으려는 시도를 상징한다.

어렸을 때부터 시기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이미 시기 받는 존재로 생활하던 유정은 홍설을 만난 이후 처음으로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는 질

25) 유정의 사촌 형인 공주형은 유정과 홍설의 학과 조교인 허조교와 게이 커플로 등장한다.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을 선택한 공주형은 집을 나와 홍설이 자취하는 단칸방 옆집에 세 들어 산다. 백인호는 유정의 고등학교 친구이지만 오해로 인해서 서로 미워하는 사이이다. 홍설을 만나면서 피아노를 다시 시작하고 홍설을 사이에 두고 유정과 삼각관계를 이룬다.

투심을 느끼고,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단계로 진입한다.

정념 중에서 '질투'(jealous)란 한 사람이 상대방을 제 삼자에 대한 관계 때문에 미워하는 감정으로 한 쌍은 기본 관계를 이루고, 상대방은 중개자가 되는 삼각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질투는 이러한 삼자 간의 갈등에서 유발되는 것이기에 관계의 변화에 대처하는 자기 능력에 대한 불안감에 기반을 둔다.²⁶⁾

이 개념을 바탕으로 보면, 유정은 질투심을 느끼면서 처음으로 자기 자신, 홍설, 그리고 홍설과 친하게 지내는 자신의 고등학교 친구 백인호와 삼각관계를 맺고, 자신의 불안한 마음 상태를 깨닫는다. 무엇보다도 유정은 삼각관계 속에서 이제까지 자신이 했던 일들을 되돌아보게 된다. 예를 들면, 유정은 자신의 카드를 훔쳤던 허 조교를 협박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홍설을 위협에 빠뜨렸던 남주현에게는 똑같은 공포를 느끼게 했고, 직장에 꼭 들어가야 하는 상철 선배의 면접 날짜를 꼬이게 만들어 어디에도 못 들어가게 만들었다. 유정은 이제까지 자신이 벌 준 사람들은 모두 먼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했던 일들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러나 홍설을 만나 이후, 유정은 자신이 타인에게 행한 많은 일들 속에 내포된 문제점과 자신이 타인에게 취하는 가식적인 태도가 옳지 않았음을 깨닫는다.

유정의 행동에 내포된 문제는 유정이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을 모두 이해할 필요도 없고 용서할 이유도 없지만, 그들에게 벌 줄 이유 역시 없다는 점이다. 유정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저지른 실수를 이용하고 때론 공포심을 유발시켜 자신의 공간에서 배제시켰던 행동들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는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의해 결국엔 유정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홍설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

26) 박종홍, 『심판』, 『국어국문학』 175집, 2016, 177쪽.

는 불안감을 느낀다.

김상철과 다르게, 절대 평가를 받는 유정은 자신이 속한 상황,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 그리고 타인들이 자신을 향해 느끼는 시기 감정을 모두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홍설과 처음으로 인간관계를 맺게 된 그는 백인호에게 홍설을 뺏길 수도 있다는 불안감과 함께 인호에 대해 질투심을 느끼게 된다. 결국 그는 자신이 이제까지 당연하게 생각하고 행동했던 모습 속에 내재된 잘못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벌어진 결과에 책임을 지려고 한다. 질투심은 질투심을 느끼는 사람에게 자존감을 낮추게 만들지만 “죄책감과 도덕심” 역시 느끼게 만들고 “집단 내에서 적절한 행동을 취하게 만드는 피드백 장치”로서 순기능을 일으키기도 한다.²⁷⁾ 유정이 어렸을 때부터 경계했던 시기심은 그를 외부로부터 고립시켰다면, 홍설과의 관계를 통해 느끼게 된 질투는 개인의 삶의 기반을 붕괴시키는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타인에게 다가갈 수 있게 만드는 연결고리로 작용했고,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바라보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다.

그러나 드라마 〈치즈인더트랩〉은 시청자들에게 낭만적인 끝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 이유는 드라마가 현실을 직시한 유정이라도 그의 노력만으로 금수저와 흙수저로 구분된 수직적 질서를 변화시킬 수 없으며,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청자들에게 환기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시청자들은 상철이 맞이한 현실, 즉 ‘보통의 삶’을 꿈꿀 수 없는 현실은 김상철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유정의 삶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현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27) 나카노 노부코·사와다 마사토, 『감정본색』, 노경아 옮김, 플루토, 2015, 183-4쪽.

4. 홍설의 ‘노오력’과 감정의 회피

홍설은 학교 주변에서 자취를 하는 대학생으로 수업시간 이외에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위해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만일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등록금 마련을 위해 휴학해야 하는 흠수저를 대표한다. 금수저인 유정과 홍설이 서로 끌리게 된 이유는 두 사람 모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성격 때문이다. 유정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접근하는 의도를 의심하고 가식적으로 사람을 대했다면, 홍설은 공부와 아르바이트로 가득 찬 팍팍한 현실에 치여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홍설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을 회피하는 이유는 21세기 상대평가 사회에서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조건 ‘노오력’을 해서 학점을 따고,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해서 졸업하고 직장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노오력’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개인이 지닌 열정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평가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많은 것을 해야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의미한다. 흠수저인 홍설은 좋은 학점을 받고 취직하기 위해 사람을 만나 관계를 맺을 시간을 아깝게 여기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해야 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감정 없는 기계”²⁸⁾가 되었다. 이 장에서는 홍설이 감정 없는 기계처럼 살면서 꿈꾸는 삶 속에 드러난 ‘보통의 삶’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유정을 통해 깨닫게 되는 감정의 특징을 살펴보겠다.

‘지친다’라는 말을 금기어처럼 여기고 열심히 살고 있는 홍설은 막상 3학년이 되자, 자신이 학점 외에는 그 흔한 영어 시험마저 준비하지 못

28) 한병철, 『심리정치: 신자유주의의 통치술』, 김태환 옮김, 문학과 지성사, 2016, 69쪽.

했고, 어쩌면 취업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홍설은 '노오력'을 아무리 해봤자 사회는 홍설의 능력 밖의 것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녀는 "개인들 간의 군비경쟁"²⁹⁾이라 불리는 다양한 스펙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고, 결국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무능한 학생이 되었다.

홍 설: 대학생만 되면 뭐든지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대학에 와보니깐 진짜 어려운 문이 있더라고요. 나는 저 사람들(지하철 안에 있는 직장인)이 제일 부러워.

백인호: 뭐가 부러워. 시체 같구만.

홍 설: 재능이 없어서 열심히 해요.

백인호: 어떻게 열심히 해?

홍 설: 그냥..그냥 열심히 해요.

(8회)

위 대화에서 보이듯이, 홍설이 하는 '노오력'은 학점을 잘 받고 직장에 취직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꿈을 꾸지 못하는 청년들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불합리한 사회 요구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홍설은 취직을 꿈꾸지만 어떤 일을 하고 싶으며 그 일을 통해 무엇을 성취하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 없이 오로지 취직을 하겠다는 꿈만 꾀다. 취직을 위해 그녀는 되도록 쉽게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강의를 들어야 하고, 남은 시간엔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직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러므로 홍설을 비롯해 많은 학생들이 꺼리는 교수는 바로 시험과 발표를 모두 요구하고 특히 조별 발표를 통해 학생들의 협동심을 요구하는 선생이다. 수강신청을 실패한 홍설은 가장 힘든 수업을 듣게 되고, 그녀가 가장 꺼리는 조원들과 조별 발표를 하게 된다. 홍설의 발표 조원들 중에서 홍설만 조별 발표에 최선을 다할 뿐이며, 다른 조원들은 자기 개별 과제만 신경 쓰고, 선배라는 이유로 후배에게 모든 걸 맡기거나 발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때

29) 최철웅, 『청년운동의 정치학』, 『문화과학』 66집, 2011, 39쪽.

홍설은 다른 사람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분담하기 보다는 자신이 혼자 모든 것을 완성하는 길을 선택한다. 그 이유는 혼자 하는 방법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보다 훨씬 쉽고 빠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팀원들의 부족함을 모두 메꾸고 완벽하게 발표를 준비한 홍설은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조원들과 마찬가지로 가장 최하점의 점수를 받는다.

(홍설 나레이션) 옆을 돌아볼 여유 따윈 없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 한눈팔지 않고 앞만 보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 왔다고 생각했다.

(희상짱: 교수) 그래서 다른 조원들이 너 만큼 못하니까 그냥 포기하고 내가 다했겠지. 뭐 그게 편했을 테고.

(홍설 나레이션) 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이 모든 게 다른 사람 탓이 아니라 내 문제라면.

(성철선배) 야 주목! 여자들은 말야.. 군대 생활을 안 해 봐서 그러는데 단체 생활을 하다보면 한명이 실수하면 다 같이 기함 받고 그런거야. 디(D) 하나 맞았다고.. 으이구...디같네. 디 같아.

(3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홍설의 태도를 책임감 있는 좋은 사람으로 평가하지만, 전공 교수는 홍설의 행동을 칭찬하기 보다는 오히려 무책임하다고 지적한다. 그 이유는 홍설의 태도가 다른 사람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했다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것을 회피하고 혼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해버리는 이기적인 행동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조별 과제보다 개인 과제를 몰래한 학생, 술이나 먹으면서 큰소리치지만 자기일은 전혀 안하는 학생만큼이나 홍설은 조별 점수를 잘 받기 위해 귀찮은 일들을 모두 무시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일을 마무리한 학생인 것이다.

전공 교수의 충고를 들은 홍설은 “이 모든 게 다른 사람 탓이 아니라 내 문제”일수도 있다고 고민하기 시작했고, 처음으로 자기 자신이 처한

현실을 되돌아본다. 남들은 홍설을 “책임감 있고, 책임감 있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하는데 도대체 홍설은 무엇에 대한 책임감을 보였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한다. 조별 발표 이후 홍설이 알게 된 사실은 자신이 학점을 위해 숙제, 발표, 시험 등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한 인물이었으며, 그 책임감은 자신의 높은 학점이외에는 다른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지 못했다는 점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감정 없는 기계”였던 홍설은 학점을 잘 받아 취직해야하는 한국 사회 속에서 “기분이나 감정이 완전히 꺼져 있는 기계가 가장 잘 작동”³⁰⁾하는 원칙을 수행하면서 오로지 취직하려는 목표에만 매진한 것이다.

홍설이 자신이 지내온 생활을 돌이켜보게 된 또 다른 계기는 바로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인 장보라와 말다툼을 한 이후 서먹하게 된 사건이다. 조별 발표를 잘 하지 못한 홍설은 혼자 학점, 아르바이트, 등록금, 휴학을 걱정하느라 보라의 질문에 성의 없이 대꾸하고 결국엔 언성을 높이게 된다. 홍설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보라에게조차 자신의 생각과 심정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 홍설이 보라에게조차 자신의 이야기를 숨기는 이유는 자신과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짐작했고, 한편으론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자존심 때문이다. 그리고 홍설은 솔직하게 말을 한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돈’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고민을 친구에게 털어놓지 않는다.

장보라: 너의 이야기를 다 하란 이야기가 아냐.
진짜 아무것도 모르니까 섭섭해.
대신 우리 조금만 솔직해지자.

(4회)

30) 한병철, 『심리정치: 신자유주의의 통치술』, 김태환 옮김, 문학과 지성사, 2016, 69쪽.

장보라가 홍설에게 화를 내는 이유는 친구사이의 관계를 상대방이 무엇인가 물리적인 도움을 줬기 때문에 맺을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한 홍설의 태도 때문이다. 장보라를 통해, 홍설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할 수 있는 대상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좋은 학점을 받는 것 보다 혹은 직장을 얻는 것 보다 중요한 것임을 깨닫는다. 그리고 그녀는 친구나 혹은 자신을 둘러싼 주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웃을 수 있는 ‘보통의 삶’의 중요성을 조금씩 깨달아간다.

마지막으로 유정 선배와 연애를 시작한 홍설은 이제까지 자신이 알지 못했던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오해와 다툼, 공포와 분노를 느끼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다. 유정 선배같이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을 여자 대학생의 스펙으로 생각하는 남주현의 질투와 분노, 유정처럼 잘난 놈과 비교당하면서 낙담하는 상철 선배의 시기와 다툼, 사람과 소통하는 방식을 몰라 폭력을 사용하는 오영곤의 스토키 행위, 홍설의 모든 것을 따라하려는 손민수의 집착과 거짓말, 그리고 쇼핑 중독에 빠져 결국엔 홍설을 다치게 만드는 백인하는 한정된 조건 아래 서로 “더 많은 것을 손에 넣으려는 상대평가”³¹⁾ 사회 속에서 절대로 멈추지 않고 재생산 될 인간 유형들이다.

맨 마지막에 홍설은 “여전히 나는 관계들 속에 있고 여전히 이 관계들이 힘들지만, 일일이 신경 쓰고 고민할 열정 같은 것도 사라진지 오래다”(16회)라고 말한다. 치열하게 고민하던 대학생활 이후 본격적으로 경쟁사회에 돌입한 홍설은 다른 사람들과의 ‘공존’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새삼 깨닫는다. 홍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쩌면 이 사회에서 감정 없는 기계가 되는 것이 좀 더 행복한 삶에 다가갈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승진하고 연봉에 따라 집, 차의 종류

31) 나카노 노부코·사와다 마사토, 『감정본색』, 노경아 옮김, 플루토, 2015, 89쪽.

가 달라지고, 결혼의 시작을 전·월세로 시작 하는가 아닌가로 인해 더욱 질투와 시기심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그것에 무더질 수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홍설과 같은 직장인이 풀어야 할 당면 과제이며, 그녀가 직면한 '보통의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대학생으로서 학점, 수업, 그리고 취업준비에만 관심을 쏟고, 그것이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생각했던 홍설은 자신과 주위 사람들이 느끼는 질투와 시기의 감정을 들여다보면서 주위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다. 이런 면에서 드라마 <치즈인더트랩>은 홍설의 신데렐라 이야기가 아니라 홍설의 성장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홍설이 성장했다는 의미는 그녀가 놀라운 변화를 겪고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했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홍설은 예전처럼 무조건 열심히 '노오력'하는 대학생이 아니라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이 할당되어 있으며, 그 몫도 경쟁 속에서 쟁취할 수도 있지만 뺏길 수도 있는 현실에 살고 있음을 직시하고 있는 직장인이 된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현실 속에서 홍설이 더욱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장보라와의 우정이며 유정 선배를 믿고 기다리는 것이다. 홍설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경쟁 사회에서 생산되는 노골적인 시기와 질투 감정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현재 사회에서 '보통의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고찰하게 된 점이다.

5. 나가는 글

신자유주의가 형성한 '소유적 시장사회'³²⁾속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

해야 하는 20·30대 청년들은 무한 경쟁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하며, 끊임없는 상대평가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받아야 한다. 드라마 〈치즈인더트랩〉은 이런 시대 속에서 대학생들이 상대의 성공을 시기·질투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낙담으로 복잡한 감정을 표출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드라마의 두 주인공인 홍설과 유정은 서로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신이 현재 처한 현실을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계기를 맞이하고, 행복하게 사는 가장 기본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된다.

홍설은 대학생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모습과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며, 그녀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자에 대해 질투를 하거나 시기를 할 만큼 타인에게 관심을 둘 여유가 없다는 점이다. 상대평가 속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는 것만 신경 썼던 홍설은 잠재적 경쟁자인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을 불필요하게 생각했고, 현실적으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일에만 몰두하면서 감정적인 소모를 피하려고 했다. 그러나 결국 홍설은 자신이 겪어야 하는 낭패감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계기를 맞이하고, 점점 타인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게 된다. 홍설은 상대방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혹은 그/그녀 주변에 연결된 사람들과 얽혀있는 관계 속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감정, 특히 질투와 시기심이 발생하는 원인과 그것을 통해 상대방을 더욱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음을 깨닫는다.

반면 유정은 자신의 상태를 되돌아보고 깨달은 각성 자체가 행복한

32) 소유적 시장사회란 “시장 원리가 모든 사회적 관계를 지배하는” 사회로 이런 사회 속에서 “사적 개인은 비폭력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더 많은 이윤을 획득하기 위하여 경쟁”하는 사회이다. 채장수, 『공공성의 한국적 현재상: 상황과 의미』, 『21세기 정치학회보』 19-1집, 2009, 49쪽.

결말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즉 드라마에서 유정은 스스로 억압하고 있던 감정을 표현하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맞이하지만, 그의 각성이 현실에 얼마나 혹은 어떻게 수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홍설과 유정 그리고 상철과 같은 개인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더 이상 “정치적 우리”를 형성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항자체의 불가능”³³⁾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상대평가가 만연된 현실 속에서 홍설과 유정 개인의 각성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낙관주의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젊은 청년 세대에게 기대를 거는 이유는 그들 나름대로 방법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이다.³⁴⁾ ‘이생명’을 낮두리처럼 말하는 청년들이 상대평가 속에서 느낄 수밖에 없는 질투, 시기, 분노, 낙담을 그들의 삶에 긍정적으로 적용하고 변화를 꾀하기 위해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개인의 욕망의 성취를 성공과 연결시켜 과시하는 현대문화”³⁵⁾를 인식하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다. 성적을 받

33) 한병철, 『심리정치: 신자유주의의 통치술』, 김태환 옮김, 문학과 지성사, 2016, 17쪽.

34) 현재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호라티우스의 시에서 나온 카르페 디엠(Carpe diem)의 개념과 일치하는 율로(YOLO: You Only Live Once)족의 등장과 ‘혼술’ ‘혼밥’ ‘혼행’과 같이 혼자서 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율로족이나, 혼술, 혼밥, 혼행을 즐기는 사람들 역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SNS나 블로그에 올려서 자신이 한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공유하고 싶어 한다. 이런 태도는 때론 의도적이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런 삶을 즐기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그들의 나르시시적인 문화로 변질될 수 있는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율로족은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사는 것을 추구하며(『2030 성인남녀 84%, 율로(YOLO)족이 좋다!』, 『노컷뉴스』, 2017.2.21), 혼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독립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 불필요하게 타인의 의사나 감정을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자신에게만 집중하려는 율로족의 태도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훨씬 우세해 보인다.

35) 김영미, 『소비사회와 시기하는 주체-페트리셔 하이스미스의 『유능한 리플리 씨』』,

는 이유, 직장에 취직해야하는 이유, 사람을 만나는 이유, 여행을 가는 이유 등을 정확히 아는 것을 통해 질투와 시기에서 비롯된 감정을 분노와 낙담이 아니라 기분 좋은 설렘과 자극으로 느끼면서 '보통의 삶'이 무엇인지 알아가려는 시도가 우리에게 지금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명호 외, 『감정의 지도 그리기』, 소명출판사, 2016, 250-1쪽.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순끼, 〈치즈인더트랩〉, 2010-2017.

드라마, 〈치즈인더트랩〉 (2016년 1월 4일 ~ 2016년 3월 1일 TvN 방영/ 연출: 이윤정/
극본: 김남희, 고선희)

2. 논문과 단행본

김미정 · 진민진 · 현명호, 『대학생의 시기심과 우울의 관계: 낙관성에 의해 조절된 후회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1집, 한국심리학회, 2016, 91-106쪽.

김영미, 『소비사회와 시기하는 주체-페트리셔 하이스미스의 유능한 리플리 씨』, 이명호 외, 『감정의 지도 그리기』, 소명출판사, 2016, 245-267쪽.

김형경, 『사람풍경』, 사람풍경, 2016.

김홍중, 『사회학적 파상력』, 문학동네, 2016.

나카노 노부코 · 사와다 마사토, 『감정본색』, 노경아 옮김, 플루토, 2015.

데이비드 버스, 『오셀로를 닮은 남자 헤라를 닮은 여자』, 이상원 옮김, 청림출판, 2003.

롤프 하우블, 『시기심: 나는 시기하지 않는다』, 이미옥 옮김, 에코리브르, 2002.

류철균 · 이지영, 『자기 재현적 웹툰의 주제 의식 연구』, 『대중서사연구』 31, 대중서사학회, 2013, 117-147쪽.

리처드 H. 스미스, 『쌈통의 심리학』, 이영아 옮김, 현암사, 2015.

미즈시마 히로코, 『여자의 인간관계』, 박선영 옮김, 눈코입, 2014.

박종홍, 『심판』, 『국어국문학』 175집, 국어국문학회, 2016, 175-195쪽.

사이토 이사무, 『사람들은 왜 험담을 할까?』, 최선임 옮김, 스카이, 2014.

야마우치 마사유키, 『질투의 세계사』, 이선이 옮김, 이너북, 2009.

앤 · 배리 올라노프, 『신데렐라와 그자매들』, 이재훈 옮김,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9.

채장수, 『공공성의 한국적 현재성: 상황과 의미』, 『21세기 정치학회보』 19-1집, 21세기 정치학회, 2009, 47-69쪽.

최철웅, 『청년운동의 정치학』, 『문화과학』 66집, 문화와 과학사, 2011, 15-50쪽.

케이트 배로스, 『시기심』, 김숙진 옮김, 이제이북스, 2001.

한병철, 『심리정치: 신자유주의의 통치술』, 김태환 옮김, 문학과 지성사, 2016.

3. 그 외 자료

『2030 성인남녀 84%, 율로(YOLO)족이 좋다!』, 『노컷뉴스』, 2017.2.21.

378 대중서사연구 제23권 2호

『“이생망” 청년들은 중얼거리고 있었다』, 『세계일보』, 2017.2.5.

『소득집중도 역대 최대.. 상위 10%가 48.5% 차지』, 『한국일보』, 2017.2.5.

Abstract

Jealousy and Envy made by Relative Evaluation and
the Opportunity to Build "the Good Life"
- the Korean Drama "Cheese in the Trap"

Chang, Jung-Yoon(Sookmyung Women's University)

In a discussion of characters' behaviors in the Korean soap opera *Cheese in the Trap*, this study explores how jealousy and envy, aggravated by a relative evaluation that controls an individual's ability to create one's life and sense of self-worth, serves to affect an individual's thoughts and behaviors in postmodern Korean society. In this drama, poor students struggle in poor economic conditions that make them feel jealousy and envy toward relatively rich students. While jealousy and envy could motivate these students to work harder for a better personal future, these feelings only make them discouraged and depressed. They know that, ultimately, "the winner takes all" in their society. Moreover, they realize that simply living a "good" life is the most difficult goal. Individuals can truly understand the minds of others and define what is a good life for themselves, this paper argues, only through the open admission that negative emotions such as jealousy and envy force people to rigorously compete with one another.

(Key Words: Cheese in the Trap, relative evaluation, jealousy, envy, competition, disappoint, relationship, good life)

논문투고일 : 2017년 4월 10일

심사완료일 : 2017년 5월 2일

수정완료일 : 2017년 5월 8일

게재확정일 : 2017년 5월 12일